

“서산대사는 육지의 ‘이순신’ 이었다”



작가 신지건

“사람들이 서산대사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의 행적에 대해서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소설을 통해 서산이 누구이며 그가 왜 우리시대에 필요한 인물인지 그를 그려보고 싶었다.”

남도 출신 작가가 서산대사의 일대기를 다룬 10권의 대하소설을 출간해 화제다. 화선이 고향인 신지건(68) 씨가 펴낸 ‘서산’(전 10권·연인 M&B)은 국가 존망이 걸린 임란 때, 승군을 모아 전장에 나섰던 서산대사의 일대기를 다룬다.

화순출신 신지건 작가, 대하소설 ‘서산’ 펴내 임란때 승군 지휘...이순신 버금가는 전승 거둬 대흥사 의뢰 받아 10권짜리 일대기 5년간 집필

한때 광주에서 교직에 근무하기도 했다는 신 작가는 박정희 정권 당시 삼선개헌에 반대해 사표를 냈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던 그는 이후 출판사에서 근무하며 소설에 대한 꿈을 키워왔다.

신 작가가 ‘서산’을 쓰게 된 계기는 해남 대흥사(주지 범각스님)로부터 서산대사 선양사업으로 창작 의뢰를 받으면서였다. 사실 대흥사 성보박물관에서 서산의 유물이 보관돼 있지만 임란 이후 전황으로 많은 유물이 유실되거나 분실된 상태라고 한다.

“서산대사가 보현사(북한 소재)에서 돌아가시기 전 모든 유물을 대흥사에 보관해달라고 유언했다. 그 유지를 받들어 유품도 보관하고 사당인 표충사에서 제사를 지냈지만, 구한말 대원군의 서원철폐령 이후 이마저도 중단됐다.”

신 작가가 지난 5년간에 걸쳐 서산을 집필하게 된 이유다. 소설은 그릇된 양반문화와 부패구조에 대항하는 서산의 분투를 역동적으로 형상화한다. 혁명을 꿈꾸었던 이들이 임란을 만나 국가를 구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필진하게 그려낸다.

신 작가는 행적으로 따지면 서산대사가 이순신 못지않은 활약을 펼친 위인이 라고 강조한다. 바다의 이순신에 버금가는 전승을 육지에서 서산대사가 거뒀다는 것이다. 또한 서산대사를 비롯한 수많은 승군들이 있었기에 이순신 또한 해전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고 덧붙인다.

“임란 때 여수 흥국사를 거점으로 승군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당시 이순신이 거북선을 건조할 때도 순천, 여수, 고흥 등지에서 온 승군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들은 바닷가 출신이라 누구보다 물길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이순신의 지략이 이들의 경험과 융합돼 시너지 효과를 낳았던 것이다.”

신 작가는 그런 내용이 ‘충무공전서’에도 나와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흔히 큰 스님을 일컬어 경성했다. 도통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서산대사가 이에 해당한다”며 “서산대사의 사상은 이후의 한국 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말한다.

그가 강조하는 서산대사의 사상은 ‘사은(四恩)’으로 집약된다. 네 가지 은혜를 일컫는데 이의 발원지는 부모, 국가, 스승, 백성이라는 것이다. 보통 유교에서는 부모, 국가, 스승을 군사부일체로 보지만 서산대사는 여기에 보시를 베푸는 백성의 은공을 남다른 의미로 본다는 거였다.



“임란 때 왜군에 맞섰던 이들은 기독교 사대부가 아니라 의병, 의승 같은 민초들이었다. 그러나 성리학적 관점을 견지했던 조선의 역사는 이들의 전적이나 공로를 애써 축소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는 조선 사대주의의 병폐가 조선을 패망으로 이끌었다면,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 또한 수많은 민초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진단한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온몸으로 공동선을 보여준 서산대사의 정신이 새삼 그리운 것은 이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 작가가 펴낸 작품으로 ‘그림자 연구’(전5권), ‘쪽 그늘로 지다’, ‘茶毘場 가는 길’, ‘벗어버린 사슬’, ‘꽃들이 하나도 없다’ 등이 있으며 현재 그는 소설 창작에 매진하고 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전남 오리 농가 ‘AI 홍역’

올 276만 마리 살처분...피해액 373억원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전남에서 276만여마리의 오리가 살처분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373억원에 달하고 있다.

향후 오리사육농가는 물론 가공업체 등 관련 산업의 침체도 우려된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전남 오리 농가 114곳에서 AI가 발생해 276만1000여마리의 오리가 살처분됐다. 시·군별 AI 발생농가는 영암이 47곳으로 가장 많고, 나주 37곳, 함평 11곳 등이다. 순천, 무안, 해남, 영광, 장흥, 담양, 강진 등 전남 10개 시·군에서 AI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살처분 보상금 230억원, 소독·생계안정자금 18억원, 매몰 비용 34억원, 초소운영비 91억원 등 373억원으로, 연말까지 계속 늘어날 조짐이다. 오리 유통과 판매업에 종사자들의 피해를 감안하면 AI로 인한 직·간접 피해액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1년 이후 3년 만에 발생한 AI는 올해 사계절 발생하는 ‘토착화’ 현상까지 보였다. 전남도 관계자는 “과거엔 주로 닭이 감염되기 쉬운 H5N1형이었는데 올해는 오리가 감염되는 H5N8형이어서 오리 농가 피해가 컸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



광주평생교육박물관 ‘복적’

광주평생교육진흥원(원장 이호준) 주관으로 1일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제2회 광주평생교육박물관’ 관람객들이 각종 부스를 돌아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달의 독립운동가’ 이경채 선생

日 제국주의 비판해 고교 퇴학 처분...광주학생운동 도화선

국가보훈처는 2일 광복회·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독립운동에 평생을 바친 이경채 선생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910년 4월 6일 광주에서 태어난 이 선생은 민족적 차별과 비교육적 처사 등에 격분,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전개하던 지난 1924년 광주고등보통학교(현 광주일고)에 진학했다.

그는 ‘친왕은 신성으로서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제국주의자의 말이라는 일제의 천황제를 비판하는 문서 수집 장을 인쇄한 뒤 해당 게시물을 인파가 붐비는 광주 송정리역 등에 붙이다가 붙은 문서 제작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서 조사를 다 받기도 전에 학교 측으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다. 그의 퇴학 처분은 광주지역 여러 학교의 동맹휴학으로 변질했는데, 이는 지난 1929년



이경채 선생

발생한 광주학생항일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이후 일본 와세다 대학에 입학, 유학생 활동을 하던 중 임시정부와 내통한 혐의로 체포돼 모친 고문을 당한 뒤 중국 상하이로 망명했다.

그는 상해에선 윤봉길 의거 이후 강제 휴교된 인성학교를 다시 개교하는데 전력을 쏟았다.

그는 1936년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에 입교, 중국군에 복무하면서 수 차례 항일 전투에 참가했으며 지난 1948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고국을 떠난 지 19년 만에 귀국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시립미술관 ‘운영 부적정’ 기관 경고

광주시 자체감사...수당 지급 등 11건 적발

광주시는 2일 “시립미술관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업무 전반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데 대해 ‘기관 경고’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공무원 국외여행 업무처리 소홀, 무기계약직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등 11건을 적발해 행정상 개선 1건, 시정 5건, 주의 5건을 처분요구했다. 아울러 간부 1명에 대해서는 주의촉구를, 직원 1명은 훈계조치할 것을 시립미술관에 통보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시립미술관은 1년 임기의 작품심의위원회를 사전 통보 없이 연임하도록 하고 작품을 구입할 때 정확하고 객관적인 시장가격에 따라 구입하지 않고 작가의 유명도나 지역 화랑가의 책정가격에 따라 구입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중요공공 내 유휴시설을 관리하면서 영업배상에 대한 책임보험에 적게 가입하고 시설운영 수입금을 매일 정산하지 않고 월별 정산해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요셉 보이시’전을 주최하면서는 초청인사 5명에 대한 숙박비를 세출 예산 규정 기준인 180만원보다 129만8000원을 초과한 309만8000원을 지출해 주의를 받았다. 이 밖에 전시도록 관리 부실, 무기계약직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홈페이지 관리 부실 등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광주시는 시립미술관으로부터 부적절하게 지출된 예산 81만1000원을 회수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기관경고는 실추된 시립미술관의 명예를 회복하고 앞으로 관장을 중심으로 거듭나도록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015학년도 입학설명회 및 신입생 모집

1 학과개편

- 세무금융행정과 6학급
- 세무보건행정과 2학급

2 신입생 입학설명회

- 일시 : 2014. 11. 6(목) 18:00
- 본교 열람실

3 신입생 모집요강

학과명	성별	학급수	모집인원			선발기준	비고
			일반전형	특별전형	합계		
세무금융행정과	여	6	173	19	192	추천 입학제 내신성적석차순 특별전형 미달시 일반전형에서 충원함	
세무보건행정과	여	2	57	7	64		
계		8	230	26	256		

4 신입생 모집일정

구분	전형일정	장소
원서교부	2014. 11. 10(월) ~ 2014. 11. 21(금)	본교홈페이지 www.songwon-gc.hs.kr
원서접수	2014. 11. 17(월) ~ 2014. 11. 21(금)	본교교무실 (062)360-5981
면접	2014. 11. 27(목)	본교
합격자발표	2014. 12. 1(월)	본교 홈페이지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Songwon Girls' Commercial High School

2015년도 전기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비지원 FTAB비즈니스학과 석사과정 모집

조선대학교 대학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FTAB전문인력 양성기관입니다. 호남권(조선대학교) / 수도권(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인하대학교)

모집과정 및 인원

- 석사과정 20명(4학기) / 박사과정 2명(4학기)

수업시간 및 교육내용

- 수업은 **주중 야간(19:00~)** 및 주말에 실시함
- FTAB비즈니스모델, 무역경영 및 수출입실무, 원산지제도 외

지원자격

-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자

전형방법

- 특별전형(서류전형 및 면접)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인터넷 원서접수 (병문 및 우편 접수 불가)	2014. 10. 29(수) 10:00 ~ 11. 10(월) 17:00	· 입학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함 · 유웨이아플라이 http://www.uwayapply.com 센터 1588-8988
입학지원서(출제) 및 서류제출	2014. 10. 29(수) 10:00 ~ 11. 11(화) 17:00	· 인터넷 접수 후 아래의 주소로 송부 또는 방문 접수(우)501-759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서석동) 조선대학교 대학원 교학팀
합격자 발표	2014. 12. 4(목) 예정	· 본교 대학원 홈페이지(www.chosun.ac.kr/~grad)에 발표됨(개발통보 없음)

지원자 우대 및 합격자 특전

- FTAB관련 기관 재직자 및 산업체 수출입 실무자 우대
- 합격자 전원 재학기간 동안(4학기) 협약기관특별장학금(수업료의 최소 1/2) 지급
- 전일제 연구생은 연구조교 근무 시 수업료 전액 지원
- 학위 취득 후 신자부정명 의의 FTAB비즈니스 전문가 인증서 발급
-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국제무역사 등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 국내·외 기관 및 업체에 대한 인턴십 기회제공 및 취업알선

*2015년도 전기 신입생 추가모집일정(예정) - 1차 : 2014년 12월 22일 / 2차 : 2015년 1월 5일

모집요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및 FTAB비즈니스학과 문의 바랍니다.
전화 : FTAB비즈니스학과 062)230-7283 대학원 062)230-6401

조선대학교 대학원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